

P41. 중국 조선족 아동의 가정 언어환경과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수준

-조선족자치주 연길과 집거촌 심양을 중심으로

Bilingu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Young Korean-Chinese Children
in Shenyang and Yanji in China

이귀옥 · 이혜련

경성대 생활경영학과 · 경희대 생활과학연구소

Kwee Ock Lee · Haeryoun Lee
Kyungsung University · Kyunghee University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속에서 생활하므로 언어생활에서 중국의 주체 민족의 언어이며 중국의 공통어인 한어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이중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조선족들은 이중언어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언어학적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은 개인이나 사회가 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두 개의 언어를 가지는 수평적 이중언어(Horizontal bilingualism)체계에 놓여 있다. 또한 중국의 소수 민족 우대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행복한 이중 언어생활을 누리고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지키고 있는 이상적인 이중 문화-이중 언어 (Bicultural-bilingual) 환경인데 이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다. 이러한 조선족 사회에서 최근 이중언어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려하여 조선어사용을 줄이고 중국어사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중언어사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중언어사용이 아동들의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들의 이중언어교육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가고 있는 중국 조선족들의 최근 언어적 배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중국 조선족들에 대한 민족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중국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자원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내에서 가장 많은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길과 심양을 중심으로 두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활환경과 두가지 언어사용에 대한 태도나 교육정도 및 사용정도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길과 심양의 4, 5, 6세 조선족 아동 총 120명을 대상으로 그 부모에게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두 지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연령이나 소득수준, 월 교육비 등은 심양과 연길의 지역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학력수준은 심양보다 연길조선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양육자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심양조선족들이 연길조선족보다 한국어를 덜 사용하고 중국어나 영어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심양과 연길의 차이가 나타나 심양조선족들이 연길조선족들보다 아동에게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길조선족들의 경우에는 대다수 부모들이 아동에게 조선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이 교사, 친척, 친구와 대화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심양조선족 아동들이 연길조선족 아동들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언어실력은 연길조선족들이 심양조선족들보다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수준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심양조선족들이 연길조선족보다 중국어수준은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족 자치구인 연길에서는 아직도 한국어사용이 매우 활발하고 한국어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심양의 경우에는 조선족 거주비율이 높긴 하지만 한족 거주비율도 높기 때문에 중국어 사용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